

‘고막 파괴자’ 잔소리쟁이 남친에 대처하기

남자든 여자든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내 남친이 잔소리쟁이라면? 잔소리쟁이 남친을 두고 있다면 ‘싱글 플러스’ (m.thesingle.co.kr)가 제안한 해결방법을 참고하자.

■ “난 OK, 난 NO” 내로남불형

예를 들어 술과 담배가 과거 남성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기호식품으로서 누구나 즐긴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여자만큼은 안된다고 선을 긋는 사람이 존재한다. 물론 나를 생각해서 이야기한다면 좋다. 하지만 심각한 이중잣대로 자기는 괜찮고 나만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해결책: 평화를 위한 일보 후퇴

우선 나는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지 되돌아보자. 혹여 그런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선 일보 후퇴하는 것이 좋다. 소위 말하는 ‘水泵’이기 때문. 하지만 난 자중하는데 그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한다? 이건 못참지!

■ “집에 가야지?” 알람형

술도 잘 안마시고, 밤늦게까지 놀 줄 모르는 남자? 결혼 상대로 완벽하다. 하지만 그런 남자와 사귀는 나는 괴롭다. 늦은 밤 기분 좋은 몽롱한 취기, 친구들과 밤새

이어지는 재미있는 수다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 밤 10시만 넘어도 전화를 수시로 걸며 “어디야? 술마셔? 누구랑 마셔? 왜 마셔?” 하며 불안해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



▶ 해결책: 안심시켜라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며 믿게 하는 것이다. 영상통화로 어디서 누구와 마시고 있음을 공유하면 된다. 물론 귀가 후 잘 도착했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면 불안감에 잔소리 하던 그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

■ “또 사니?” 쇼핑 삼고초려형

간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지갑을 열려고 하면 “꼭 필요해? 세 번 생각해.” 라며 잔소리하는 남친.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편히 저려네?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더불어 백화점에서 본 신상 원피스를 보고 고심하는 나에게 “치마 있잖아. 또 사?”라고 통명스럽게 내뱉는 말, 우매해 보인다.

▶ 해결책: 보여주지 마라

괜한 짜움을 할 필요 없다. 이럴 때는 우회로를 찾는 것이 좋다. 남친과의 테이트에서 새 옷을 입지 마라. 늘 입던 옷만 입어라. 그래도 모르고 넘어간다면 그려려니 해라. 패션의 꿈에도 관심 없는 남자일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 신간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종의 고백,
임금 노릇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평전은 '이도李祹'라는 한 인간의 정치적 삶을 다루고 있다. 그려기에 각 문장의 서술에서부터 주어로 세종이 아니라 이도라는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세종世宗'이라는 묘호는 이도가 죽은 후에 임금으로서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평전은 사후의 칭송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국왕이라는 정치행위자로 살아간 한 인간의 행적을 고찰한다. 독자들은 이 평전에서 결코 완성형이 아닌, 성장하는 국왕으로서 이도의 정치적 여정을 함께하면서 세종 이도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송재혁 지음 | 푸른역사 펴냄 | 408쪽

“사장님, 아직도 ERC 못받으셨어요?”

**팬데믹으로 힘든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정부 크레딧 신청하세요!**

돈이 아닌 정부 텔스 퍼센트인 ERC는
비즈니스 오너 누구나 진정 가능합니다.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 UP TO
\$26,000 per
W-2 EMPLOYEE

\$26K X 2



- 1 PPP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YES
- 2 코비드동안 매출이 올랐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YES
- 3 어떤 업종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Essential 포함) YES



(Eng) 714-308-9784
(Kor) 714-886-7725



info@upperpartners.com
upperpartners.com



1521 E Orangethorpe Ave Suite A,
Fullerton, CA 92831

